

오늘도 내일도 오직 '시민 행복'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가치로 시민 복리증진에 앞장서 온 전주시의회는 올 상반기에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주력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66만 전주 시민의 동반자로 내일을 다지는 전주시의회 2020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간추려 본다.



“시민과 소통 알찬 의정활동 펼쳐”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년간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과 소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특히,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실천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뛰어왔다. 박의장은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주시의 철저한 방역 활동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섰다.



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결속과 구 결의안 및 전북도민들의 교통선택권과 시간·경제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인천국제공항 운항버스 시외버스노선 유지 촉구' 결의안 채택 등으로 지역 정치의 한계를 넘어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한 밑거름을 다져왔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박 의장은 “앞으로도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정책발굴을 통해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벌였고 사회적거리두기 운동 등으로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착한임대료' 운동에 건물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지방분

▶▶ 사진으로 보는 올 상반기 의정활동



'해고없는도시 전주' 상생 선언을 외치는 박병술 의장.



코로나 상황실 직원들을 위로하는 강동화 부의장.

“내실 있는 의회 운영 실천”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66만 전주 시민의 소중한 뜻을 대변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한편 뛰어난 친화력과 보이지 않는 리더십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다.



부지 개발관련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방향제시와 전라감영복원사업, 탄소산업 진흥 등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점사업을 육성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이자 내일이 더 행복한 으뜸 도시로 성장하는 데 힘 쏟고 있다. 강 부의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시민들의 희망과 미래와 전주 시민복리와 지역발전에 제대로 사용되어 시민의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시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66만 전주 시민의 대의기관인 전주시의회가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지역사회에 감동을 빚은 옛 대한방직



전주시물관리공단을 방문한 행정위원회 위원들.



마을버스 '바로운' 현장 점검에 나선 도시건설위원회.

▶▶ 상임위원회 의정 성과

운영위원회 - 원활한 의회 운영 주력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했다.

회기마다 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며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역량강화 및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이 감동하는 의정활동과 청렴하고 바른 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서로 힘을 모았다. 또한 위원회는 올 상반기 조례 제·개정안, 건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범위를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토록 하여 탄력적 연구단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덕 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행정위원회 - 시민의 편에서 복지행정 추진

행정위원회는 시민의 편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추진을 열심히 뛰었다. 주로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행정위원회는 전주시 예산이 시민복리와 지역발전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왔다. 위원회는 그동안 6차례 회의에서 총 22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처리 했다.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을 다뤘다. 백영규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하반기에도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영규 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 복지 증진 · 쾌적한 환경 조성

복지환경위원회는 시민에게 생산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특히,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 집행부와 각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등 전주시의내실 있는 복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발로 뛰어왔다. 복지환경위원회는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등 총 3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등을 다뤘다. 이경신 위원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혜택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심을 두었다”며 “의원님들의 협조로 위원회 운영이 내실 있었다”고 말했다.



이경신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문화경제위원회 - 코로나19 위기, 지역경제 회복

문화경제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해 노력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각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예산 승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모두 6회의 회의를 통해 모두 26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했다.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를 통해 착한 임대운동의 확산을 불러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박형배 위원장은 “무엇보다 코로나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위원회 활동에 나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형배 위원장



김승섭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

도시건설위원회는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만들기를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위원회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며 시민위주의 도로개설 등 친환경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섰다. 위원회는 모두 6차례 회의에서 모두 26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비롯해 '전주시 마을버스 위탁운영 동의안' 및 '전주시라움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을 다뤘다. 위원회는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열화상카메라 운영현장 및 금암광장 교차로개선 사업지, 전주시 마을버스(바로운) 운영노선을 견학하여 사업추진을 점검했다. 김진욱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전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위원회를 이끌었다”며 “전주의 내일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위원장



박선준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투명 · 건전 재정 운용 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투명한 예산 집행과 재정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위원회는 2020년 전주시예산 1조 8885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안이 전주시역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2020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김남규 위원장은 “예결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위원회가 한마음 한 뜻으로 맡은 소임을 해 낼 수 있었으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남규 위원장



김동훈 부위원장